

[열린세상] 한류와 한국 관광, 그리고 한스타일 건축/한필원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 한필원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지난 몇 달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 여행을 앞두고 들뜨고 기대도 됐지만, 여행이 길어지면 집 밥도 그리겠고 무엇보다 이방인의 외로움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하니 걱정도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걱정이 걱정으로 끝났다. 뜻밖에도 가는 곳마다 한국 문화를 접했기 때문이다. 하룻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심을 거니는데 대성당 앞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요란한 음악에 맞춰 강렬한 율동을 선보이는 비보이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때 군중을 뚫고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들려왔다. 그 광경은 반가웠지만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실은 며칠 전 알람브라궁전을 보려고 들른 그라나다의 숙소에서 스페인 그룹이 특유의 춤을 추며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TV에서 봤기 때문이다.

중국 남부 객가(客家)의 중심 도시인 메이저우(梅州)에서 저녁에 차를 마시러 시내로 나갔을 때다. 우리 일행이 찻잔을 앞에 놓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옆 테이블에 있던 소녀와 어머니가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와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다. 모녀 모두 한국 드라마의 팬이라는 것이다. 그때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껄끄러운 때였는데 모녀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이 또한 이미 놀라운 경험은 아니다. 필자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중국에서 현지 조사를 하며 어느 지역에서도 저녁 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 한류는 드라마, 가요 등 대중문화의 범주를 넘지 못할 것이고 그리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한류는 TV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영화, 패션 등 다양한 문화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한류를 통해 전 세계인이 갖게 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언어, 음식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관광으로 큰 결실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류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관광 수지는 계속 적자다. 메르스 때문이기는 하지만 특히 지난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관광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보다 6.8% 감소한 1323만 1651명이었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여행객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151억 7690만 달러로 전년(177억 1180만 달러)보다 14.3% 줄었다.

여행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여행에서 보는 것의 많은 부분은 도시와 그것을 이루는 건축이다. 필자가 또 한번 반갑게 한류를 만났던 유럽과 중국에서 자주 떠오른 것은 볼거리가 빈약한 우리나라의 관광 현실이었다. 긴 역사에 비해 오래된 유산이 적은 편이기도 하지만,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에 가도 볼만한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몇 개 지점에 불과하고 오늘날 시민들이 생활하는 도시공간으로 나오면 국적을 알 수 없는, 미학적으로 낮은 수준의 건물과 가로가 분위기를 깨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외국 관광객이 문화적 호기심에 충만해 그런 도시를 찾더라도 오래 머무르거나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보통 관광산업 경쟁력을 따질 때 자연 및 문화자원, 인프라, 여행 여건 등을 지표로 하는데, 인프라와 여건의 수준은 교통, 식당과 호텔만이 아니라 도시 공간 자체가 좌우한다.

요컨대 한국 문화관광의 주요 대상인 역사 도시의 큰 문제는 한국 문화의 역사와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적고 도시 공간의 전체적인 건축 및 경관 수준이 낮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한스타일 생태건축’이라는 연구개발을 기획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한류가 한국 관광으로 이어져 큰 결실을 보려면 장구한 시간 귀중한 문화재를 보전하고 있는 한국의 오래된 도시들에서 현대 시민의 생활을 담아내고 관광객들에게는 문화관광의 인프라가 되는 건축 양식, 이른바 한스타일 건축이 필요하다. 그것을 궁리해 개발하는 일은 사업성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서 하기 어려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한류를 담는 그릇으로, 한류의 배경으로, 또한 한국 관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정체성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해 멋진 한스타일 생태건축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 기사일자 : 2016-03-12 |